

善山 지방 書院의 毀撤과 〈烏有居士傳〉

서신혜*

|| 차례 ||

1. 시작하며
2. 서원의 浮沈과 善山
3. <오유거사전>의 시간 배경과 창작에 담긴 의도
4. <오유거사전>의 문학적 의미 - 마무리를 곁히여

【국문초록】

서원은 공식적으로는 조선 중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향촌 사람들의 교육·교화 기관이었고, 동시에 향촌 유림들의 집합소요 정신적 중심지였다. 서원의 성쇠는 곧 사람의 성쇠와 맥을 같이 하였다.

<오유거사전>은 서원훼철령을 둘러싼 선산지방 선비들의 의식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유거사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먼저, 이 작품이 서원복설 논의가 한창일 때 지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자처리나 결말처리는 서원복설 발언에 대한 후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향사 인물 설정 등에 따른 잡음을 두려워한 탓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지원은 『일선속지』를 편찬하면서 선산이라는 한 지방의 인물을 신는 데에 집중했다. 이것은 한 지방의 안내서이어야 할 邑誌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특성이 <오유거사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또 여러 인물을 자랑하듯 드러내는 일은 선산지방 세력의 역사적 부침과도 연관됨을 말하였다. 더불어 『일선속지』의 인물의 명단을 나열하는 데에 <오유거사전>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오유거사전>이 『일선속지』의 소개나 선전을 위한 의도적인 기능물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주제어 선산, 서원훼철, 오유거사전, 일선속지, 금생이문록, 일선지, 향사(享祀), 김지원, 최현

* 한양대학교 강의전담교수

1. 시작하며

이 글은 선산 지방 서원의 존재와 관련 이 지역 선비들의 의식을 형상화한 소설 〈오유거사전〉에 얽힌 몇 가지 문제를 다룬 것이다.

서원과 고소설은 언뜻 서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선지』와 『일선속지』의 뒷편에 각각 부록된 몽유록 소설 〈금생이문록〉과 〈오유거사전〉¹⁾의 경우는 분명 서원관련 문제를 작품의 중심에 두어 형상화한 것이다. 전자는 『일선지』에 실린 선산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금오서원 봉안 인물들의 位次 문제를 다루었다. 후자는 선산 지방 수많은 서원들이 毀撤된 것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였다. 소설로 서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같지만 다루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 전자에 관해서는 이미 상세한 논고²⁾가 있으므로, 논의의 초점을 〈오유거사전〉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서원의 浮沈과 善山

〈오유거사전〉을 살피려면 우선 서원의 浮沈에 관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서원은 15세기 후반 관학이 쇠미해져 교육기능을 상실했을 즈음 士林세

- 1) 崔胤과 金志遠이 각각 편찬한 『善誌』와 『善續誌』는 선산문화원에 의해 간행되었다. 전자는 『善山文化』4호(1990년)로 간행되었고, 후자는 단일책명으로 1985년에 간행되었다. 그리고 자기 이 책 안에 〈금생이문록〉과 〈오유거사전〉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할 때에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 2) 홍제휴, 「금생이문록-몽유록계 소설의 新資料」, 『국어교육연구』2집(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71), 145~161쪽. ;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박이정, 1998), 162~192쪽. ; 김동협, 「금생이문록의 창작배경과 서술의식」, 『동방한문학』27집(동방한문학회, 2004.12), 95~115쪽. ; 분범두, 「금생이문록의 작자의의식과 주제」, 『한민족어문학』45집(한민족어문학회, 2004.12), 383~420쪽.

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향촌 教化 教育 기구이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에서부터 시작된 서원은 교육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내세웠기에 훈고 세력의 견제를 덜 받으면서 사림을 결집하여 향촌지배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종 이후 명종대까지의 초창기 서원은 사림의 적극적인 서원보급 운동으로 퇴계의 書院十詠에 나오는 입고서원, 영봉서원, 남계서원 등 여러 서원이 설립되어 착실히 운영되었다.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는 선조대에 와서는 서원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건립·운영된다. 이때 이미 서원의 수는 60여개소를 넘었고 숙종조에 들면 한 도에 80~90여개가 넘는 院祠가 세워져³⁾ 서원의 濫設과 疊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였다. 향촌 공동으로 설립 운영되던 것들이 각기 지역별 문중별로 개별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인과 서인간의 심각한 정권투쟁의 와중에 자파의 세력 확보를 위해 서원을 이용함으로써 향촌 사회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영조 17년에 전국 173개소 院祠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졌고 이어 고종 5년과 8년에 대원군에 의한 대대적인 서원훼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국에 총 47개소의 원사만이 남게 되었다. 유생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원군의 강력한 대처로 이런 노력은 당시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⁴⁾

善山지방의 경우, 士類의 위상이 높았던 만큼 이곳에 서원도 여럿 있었다. 서원 훼손 전 전산에 세워졌던 서원으로는 吉再 등을 봉안한 金鳥서원, 金澍 등을 봉안한 月巖서원, 金淑滋 등을 봉안한 洛峰서원, 김종부 등을

3) 『書院謄錄』2권, 辛酉(숙종7년) 11월 9일조 : 臣竊惟書院之意非不美, 而到今其數過多, 一邑至有八九處, 一道至有八九十者, 云云.

4) 이상 서원의 浮沈에 관한 내용은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집문당, 2004) ; 이수환, 『조선후기서원연구』(일조각, 2001)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집문당, 1997) ;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를 참조하였음.

불안한 南崗서원, 田佐命 등을 불안한 茂洞서원, 吳湜 등을 불안한 景洛서원, 崔應龍 등을 불안한 松山서원, 金寧을 불안한 勝巖서원, 鄭錫堅 등을 불안한 華江서원, 盧守誠 등을 불안한 文山서원 등 여럿이 있었다. 이중 앞의 셋은 사액서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서원들은 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철폐령으로 금오서원만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철폐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전기에 선산 출신 성리학자나 관료들이 정치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조선 인물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물의 반은 선산에 있다'⁵⁾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16~17세기 이후 안동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그 세력을 제대로 떨치지 못하였다. 이 지방 士類들은 늘 이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하였다. 『義烈圖』 등을 전국에 퍼뜨려 吉再의 遺風이 남아 있는 절의의 고장이라는 것을 다투어 강조하는 등 그들이 자기 고장의 세력을 다시 일으키는 데 기울인 정성은 남다르다.⁶⁾ 자신들의 고장에 儒敎의 儒風이 살아 있어 士類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敎化되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알리려 했다. 그러나 조선 전기와 같은 세를 다시 누리지는 못하였다. 이런 즈음에 향촌 士類의 집합소요 향촌 지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서원마저 철폐되었으니 그에 따른 충격 역시 상당했을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오유거사전>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5) 成倪(1439~1504), 『庸齋叢話』: 朝鮮人才半在嶺南, 嶺南人才半在善山.

6) 선산 관련 논의는 한충희, 「선산과 조선전기 성리학 및 사림파」, 『한국학논집』 24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31~60쪽과 우인수, 「여헌 장현광과 선산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보고사, 2004), 113~142쪽과 서신혜, 「열녀 향량을 말하다」(보고사, 2004), 13~218쪽 등을 참조.

3. <오유거사전>의 시간 배경과 창작에 담긴 의도

<오유거사전>은 『일선속지』天卷의 뒤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 면에 10行씩, 각 행 평균 24자로 이루어진 15쪽 분량의 몽유록 소설이다. 구한말 인물 金志遠⁷⁾이 『일선속지』를 私撰하면서 덧붙여 놓은 것으로, 작품 끝에 ‘辛丑 9月 上旬’이라고 표시해 둔 것이나 그의 생몰년 등을 종합할 때 1901년에 창작된 작품이다.⁸⁾

오유거사가 잠깐 잠든 사이 어느 곳에서 儒會가 열리는 것을 목격한다. 이곳에 참여한 이들은 서원철폐로 백성과 선비들이 따를 만한 곳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며, 선산지방의 國賢과 鄉賢을 위해 두 차례의 享禮를 치른다. 또 이후 시대를 산 淑行君子를 위해 享祀를 올릴 것을 의논하다가 좀 더 폭넓게 道論을 알아보고 새봄에 일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파한다. 이것까지를 본 후 오유거사는 잠을 깬다. 이것이 <오유거사전>의 내용이다.

필자는 이 작품의 시간적·사회적 배경과 창작 의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작품의 시간적·사회적 배경

우선 이 작품 출현의 시간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烏有居士라는 인물의 소개부터 시작한다. 본래 ‘어찌(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의 ‘烏有’를 등장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작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 가공인물을 설정할 때 쓰는 문학상의 관습이다. 그런

7) 김지원(1841~1906): 호는 月湖. 본관은 坪城. 아버지는 晚窩 金秀穆. 眞樂堂 就成의 동생 久庵 就文의 7대손.

8) 작가와 창작년대에 관해서는 심재완, 「일선속지해제」, 『일선속지』(선산문화원, 1985), 503~513쪽과 홍재휴, 「烏有居士傳考」, 『연구논문집』56집(대구 효성가톨릭대, 1997. 12), 57~72쪽에 자세하다.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가공의 인물에게 어떤 특성을 씌우느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의 특성은 곧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는 성이나 자마저 알 수 없는 사람이며 특별히 지혜가 남다른 사람도 아니다. 다만 儒學을 숭상하는 고을에서 자라나, 先儒를 받들고 사모하기를 마치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이라고 했다.⁹⁾ '鄒魯之鄉'과 '先儒 숭상'을 내세워 이야기를 시작한 대로 이야기의 내용은 '善山'이라는 특정 고을의 특성과 '書院 享祀'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작품의 내용이 享祀로 이어지므로 후자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흔히 전자 '善山'의 특수성과 의미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기가 쉽다. 그러나 오유거사 인물 설정 부분부터 이후 내용까지 '선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 곳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오유거사가 가공인물이므로 그를 통해 특정 시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작품에서 일정하게 시간적인 한정을 두고 있다. 그 하나는 150년 이내 인물로 한정하여 享祀에 참여시킨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서원 齋철로 인한 우려와 불만을 드러내며 다시금 享祀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1인칭 관찰자 오유거사가 꿈속에서 儒會에 참석하여 그 모임의 취지를 담은 글을 읽게 되는데¹⁰⁾ 그 대체적인 내용은 '孔孟의 道로 이제 막 일어나는 邪說을 막고자 하는 뜻'이었다. '회원은 150년 이내의 인물로 한정하여 옹하게 하라는 조항도 포함¹¹⁾되어 있었다. 왜 150년 이내라고 했을까? 단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으로 추정해 볼

9) <오유거사전> 66쪽: 生長鄒魯之鄉, 所尊者聖賢也, …考其生平, 文不能, 考博智, 不能料事, 無表表可稱之事業. 至於尊崇先輩, 不啻如飢渴之於飲食也.

10) <오유거사전> 68~69쪽: 又看卷首, 有一通草, 乃設儒會文字也. 其略曰: 夫衛道尊賢, 吾儒之本色, …

11) <오유거사전>69쪽: 此亦中會員限以百五十年以內.

수는 있다. 儒會가 열려 선비들이 다 모이자 首座가 일어나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우리 고을에는 일찍이 세 개의 사액서원과, 아홉 개의 鄉祠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훼손되어 향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 금오서원만이 우뚝하게 남아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만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여러 院祠는 享祀를 거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선비들은 의지할 데를 잃어버려 탄식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鄉先生의 위패를 차례로 나누어 모시고 享祀를 한번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¹²⁾

한마디로 원사의 훼손을 안타까워하면서 享祀의 재현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원훼손 논의가 일고 실행된 것은 크게 영조 代와 대원군 執權時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영조 때의 祠院 훼손은 영조 17년(1740년)에 있었다. 『增補文獻備考』에 ‘이 때에 훼손된 사원은 모두 삼백여개이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실제 훼손된 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당한 훼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때 善山에서, 병자호란 시 공을 세워 이후 남해현령이 되었던 許應祥을 제향하던 祠가 훼손되기도 하였다.¹⁴⁾ <오유거사전>이 전면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서원훼손에 따른 邪風의 유입인 것과 이 작품의 창작년대가 1901년임을 고려할 때, 150년 이내의 인물로 儒會 참석인원을 제한한 것은 원사훼손의 논의와 시행이 이루어졌던 영조代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작품의 시대배경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서원 훼손 이후 享祀를 부활하기

12) <오유거사전> 70쪽: 吾鄉會有三額院九鄉祠, 而今皆掇而不享. 特一金烏, 巍然獨存, 猶爲不幸之幸, 而外諸院祠, 久闕禱儀. …吾儒之失依, 齋鬱久矣. 以鄉先生祭社之儀, 分次設位, 一番薦苾如何?

13) 『增補文獻備考』 210권, 「學校考, 祠院總論」, 영조 17년조: 於時, 祠院毀撤者, 凡三百餘所.

14) 영조대의 祠院 훼손에 관해서는 정만조, 앞의 책, 249~300쪽 참조.

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홍재휴의 논의¹⁵⁾를 돌아보아야 한다. 홍재휴는 작가가 이 소설이나 『일선속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놓지 않은 것에 집중하였다. 그는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 고자' 하였다면서 그 이유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용납할 수 없는 書院의 복원이나 鄉祠의 창설을 主唱하는 작품'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주장은 '違律행위라 다가올 後患을 고려하여 부득이 익명으로 하였을 것'¹⁶⁾이라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대적인 院祠毀撤은 대원군 집권시인 고종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만동묘의 철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고종 5년과 8년에 전면적인 원사철폐를 단행하였다. 그러다 고종 10년 대원군이 해야하자마자 만동묘와 서원의 복설을 요청하는 상소가 쏟아졌다. 고종 10년 10월 29일 만동묘와 서원의 복설을 요청하는 홍시형의 상소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유생들은 계속 이 같은 상소를 올렸다. 결국 11년 2월 고종은 만동묘의 복설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복설을 요구하는 상소도 더욱 빗발쳤다. 물론 고종은 서원 복설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체 허락하지는 않았으나 유림들은 우선 단을 쌓아 선현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이라도 다시 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1891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유림들은 전국 47개 서원과 향교에 통문을 돌려 뽕을 쌓자는 여론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1890년대 초반 호남에서도 柄山祠나 寶山祠 등의 祠宇를 다시 일으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¹⁷⁾ 이는 전국적인 움직임이었다.

15) <오유겨사전>에 대한 논의는 홍재휴가 유일하다. (홍재휴, 앞의 논문, 57~72쪽. 논문 뒤 73~90쪽에 이 작품의 원전과 역주를 함께 실었다.) 그는 인구의 선편을 잡은 만 큼 작품에 대한 서지, 작자, 제작년대,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폭넓게 다루었다. 필자는 그의 대체적인 논의에 동의한다.

16) 홍재휴, 앞의 논문, 61쪽.

17) 이 내용은 윤희면, 앞의 책, 174~179쪽에 자세하다.

예컨대 고종 20년 12월에만도 1일에 慶尙道 幼學 金景洛 등과, 慶尙道 幼學 權心夔 등이 서원의 복설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11일에 慶尙道 儒生 權世淵 등이, 22일에 忠淸道 儒生 黃翼熙 등이, 24일에 平壤府 進士 盧愷 등이, 28일에는 忠淸道 幼學 趙得年 등이 역시 서원의 복설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같은 상소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미 서원 복설에 관한 논의나 이것의 공론화는 後患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다. 더구나 이보다 10년이나 후인 1901년에야 지은 <오유거사전>에서 작가가 서원복설 공론화로 인한 후환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요컨대 작가가 서원 복설 발언에 따른 후환을 두려워해서 ‘익명’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아닌 다른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봐야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享祀 인물 설정에 따른 잡음을 두려워한 탓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다음 항목의 논의와 연결되므로 뒤에서 다시 언급된다.

2) <오유거사전>의 특성과 창작에 담긴 의도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儒會에서의 결의로 두 번의 享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향사가 준비되다가 연기되는 것이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이다. 여기에서 또한 이 소설의 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특징은 작가의 소설 창작 의도와 연관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특징은 이렇다. <오유거사전>에서는 봉향할 대상, 향사의 절차상 필요한 각 소임을 담당할 인물, 이 향사에 참여할 이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 그것에 소설 全文의 약 1/3 가량을 할애했다. 길지도 않는 작품 속에 100명이 넘는 인물들을 일일이 다 써 놓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들어 있는 『일선속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선속지』에는 앞 시기 간행된 최현의 『일선지』에 거명되지 않은 수많은 인물이나 서원을 일일이 다 적어 놓았다. 한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문화적인 종합 안내서이어야 할 邑誌이건만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지방 출신 인물들의 행적과 사업 등만을 기형적으로 자세히, 다수 수록하고 있는 것이 『일선속지』의 특성이다.¹⁸⁾

『일선속지』와 『일선지』, 〈오유거사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김지원이 두 읍지를 옆에 펴 놓은 채 〈오유거사전〉 속의 인명을 적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속지』에 등장하는 인물로 그 대부분을 채웠다.

예컨대 國賢 13位와 鄉賢 24位의 享祀를 제안하면서 이들의 명단을 쪽 적었다.¹⁹⁾ 이들 명단은 『일선속지』 書院新建 항목²⁰⁾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書院新建 항목에는 月巖書院 등 10곳의 서원과 旅軒을 모신 影堂 1곳까지 쪽 적었고 각 곳마다 거기에 모신 인물들을 적었다. 금오서원은 『일선지』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므로 적지 않았다. 선산에서 賜額된 서원은 금오서원과 월암서원, 낙봉서원 이 세 곳이고 이들에 봉안되어 있는 인물을 합하면 총 13이다. 나머지 이 9곳 서원에 봉향한 인물을 모두 鄉賢으로 적어 놓았다.²¹⁾ 이들이 그대로 국현과 향현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18) 이 점은 심재원이 〈일선속지 해제〉 504쪽에서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 심재원은 인물 중에서도 편자의 집안인 坪城俞氏 一門 十人들의 이름과 詩文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19) 향현은 24위라고 했으면서도 실은 26명의 이름을 적었다.

20) 선산문화원 刊, 『일선속지』, 12~14쪽.

21)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다만 본문 내용의 흐름에 비할 때 약간 결결로 새는 것 같으므로 각주를 통해 밝혀 둔다. 『일선속지』 서원항목에는 총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현 장현광은 금오서원에 봉안되어 있으므로 제외하면 총 27명이어야 하는데 〈오유거사전〉에서는 26명만 적혀있다. 빠진 것은 松亭 崔應龍이다. 그는 왜 제외되었는가? 『일선속지』를 살펴보면 최송정의 경우 본래의 줄에는 빠져 있다. 이것을 나중에 표시하고 行間에 적어 넣었다. 또 樛亭 황필의 경우 〈오유거사전〉에서는 樛을 常이라 적어 놓았다. 『일선속지』에도 본래 행에는 常이라 적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겹게 지우고 行間에 樛이라 고쳐 놓았다. 『일선속지』를 쓴 후 교정하는 과정에서 고친

또 <오유거사전>에는 '享祀하는 장소가 좁은 까닭에 벼슬아치는 줄이고 儒生은 모두 참여시킨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것은 『일선속지』 人物조의 '勳烈 文武 蔭仕 應薦'항에 있는 인물들²²⁾을 쪽 옮겨놓은 것이다. 또 鄉祠의 爬任 명단을 적어 놓은 부분은 『일선속지』 인물조의 '淑行'항에 해당하는 인물들에서 뽑아 옮겨 놓은 것²³⁾이다.

『일선속지』의 특성이 이 지방 출신 인물들을 드러내는 데에 특히 힘쓰고 그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점이라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물들 자체를 제시하는 데에 특히 힘을 쓴다는 특성은 <오유거사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일선속지』가 <오유거사전> 보다 앞선다는 점(각주 21번 참조)을 볼 때 의도적으로 소설 속에서 이런 특성을 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특성은 善山 유자들의 분위기와 연관 지어 생각해 봄 직도 하다. 앞서도 잠시 이야기 했듯 조선 전기 선산은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여 명실 공히 성리학적인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치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연이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 이후 선산은 다시는 전대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산 유자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길재의 유풍으로 연결시키며 다투어 傳으로 만들거나 상소를 하거나 하여 선산의 문화를 전국에 알리기에 힘을 썼다.²⁴⁾ 오유거사

것이다. 書院新建 항목에서 고친 부분은 이렇게 둘 뿐이다. 그리고 그 둘은 <오유거사전>에 똑같이 나타난다. <오유거사전> 내용 속에서 『일선속지』를 등장인물들 앞에 내어 놓는 장면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오유거사전>보다 『일선속지』의 편찬이 앞서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김지원은 『일선속지』를 편찬한 후 교정을 보기 전에 이를 바탕으로 <오유거사전>을 기록했다는 것이 된다.

22) 선산문화원 편, 『일선속지』, 31~47쪽.

23) 선산문화원 편, 『일선속지』, 54~56쪽.

24) 이에 관해서는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善山地方의 香娘이 '국가 열녀로 還生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을 참고할 만하다.

를 형상화하면서 '유학을 숭상하는 고을'에서 태어난 것을 굳이 강조한 것은 선산 유자의 특성이 작자 김지원에게까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작가는, 전대 같이 각 인물들이 나라 정치 곳곳에서 세력을 펴지는 못하고 있을 지라도 선산은 절의의 고장이며 이에 걸맞게 '수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문학을 통해서 고장의 긍지를 드러내고 선전하려고 힘썼던 선산 유자들의 전통을 일정 부분 이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작가는, 서원이 훼손됨으로써 儒者로서 先賢을 祭享하며 받드는 '당연한' 일을 못하여 마음이 무거웠으나, 소설에서나마 享祀하도록 함으로써 마음의 짐과 울분을 덜 수 있었다. 享祀를 재계하는 와중에 수많은 인물들을 드러내어 인물 많은 선산지방 鄉土로서의 긍지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선산의 문인 訥齋 崔暉(1563~1640)은 선산 지방 읍지인 『一善誌』를 편찬하면서 부록으로 선조 27년(1594)에 완성한 <琴生異聞錄>을 수록하였다. 이 작품은 일명 <金烏夢遊錄>이라고도 한다. 약 300년 후 김지원이 사사료이 『一善續誌』를 天地人 3권으로 편찬하였는데, 이 때 <오유거사전>이라는 몽유록 작품을 天卷 뒤에 붙였다. 똑같이 몽유록 형식으로 소설을 쓴 점, 둘 다 서원 관련 문제를 다룬 점, 선산 지방에 국한하여 역대 인물들을 소설의 등장인물로 등장시켜 고장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현의 <금생이문록>이라는 몽유록 소설이 『일선지』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김지원 역시 의도적으로 최현의 예를 따랐다는 것은 명백하다.²⁵⁾ 그러나 <오유거사전>은 겉으로는 <금생이문록>의 모든 형식을

25) 그러나 문학적인 성취나 완성도 면에서 볼 때 위 두 작품은 나란히 놓을 수 없다. <금생이문록>은 시를 통해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문학성을 고조시키는 등 각종 소설적 수법을 잘 이용하여 일정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二重의 含意를 갖춘 寓意문학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오유거사전>은 사건 전개가 단편적이면서 인물 나열에 그치는 등 문학적 미감의 면에서는 <금생이문록>과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른 것 같지만 실제로 작품의 내용을 볼 때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한다.

두 번의 享祀를 마친 후, 작품의 끝부분에 가면 國賢과 鄉賢 외에도 享祀를 지낼 만한 인물들이 많으므로 이들도 같은 예에 따라 享祀를 올리자는 의논이 나온다. 다들 좋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어떤 인물들이 享祀를 지낼만한 이들인지 명단을 뽑아야 했다. 이때 公事員이 소매에서 한 책을 꺼내어 말한다.

“이것은 일선지와 속지 인물편 가운데 속행군자를 뽑아 기록한 것입니다. 둘러보시면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²⁶⁾

座中은 돌려 읽으면 시간만 허비할 뿐이므로 한 사람이 높은 소리로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또 수십 명의 명단이 호명되는데 등장인물의 말처럼 이 명단은 『일선지』²⁷⁾와 『일선속지』²⁸⁾의 인물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앞쪽에는 『일선지』에 오른 사람을 적고 뒤쪽에 『일선속지』에 오른 사람을 적어서 구분했다. 『일선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일선지』에 수록된 시대 이후 인물의 선택 기준으로 『일선속지』가 제시된 것이다.

이런 장면의 제시를 통해 김지원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는 『일선지』와 『일선속지』를 나란히 놓아 자신이 편찬한 책의 가치를 높였다. 최현은 鄭述의 문인으로, 부제학 등을 지냈다가 예조판서로 추증되기까지 했었다. 그런 그가 점필재 김종직 등 여러 인물들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꼼꼼히 만든 책²⁹⁾이 『일선지』였고 300여 년 전에 편찬한 책이 김지원 당

26) <오유거사전> 78쪽: “此一善原誌與續誌人物篇中淑行君子抄錄也。輪覽可燭矣。”

27) 崔暉, 『일선지』4권, 67b~76a쪽.

28) 선산문화원 편, 『일선속지』, 50~53쪽.

29) 심재원, <일선지해제>에 자세하다.

시까지 전해지고 있었으니 이미 이 책은 상당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책 이름을 '續誌'라 하여 앞선 책을 '잇는다'는 표시를 하고 앞 책의 체재를 따라 같은 형식의 소설까지 덧붙임으로써 김지원 자신의 책을 『일선지』와 쌍이 되게 하였다. 또한 인용한 것 같이 소설 내에 직접 두 책을 같은 조건으로 제시하여 김지원 자신의 책과 작품으로 하여금 앞 시기 김현의 것이 가진 명성을 업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김지원은 이런 장면 제시를 통해 자신의 책 『일선속지』를 반복 소개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일선속지』를 편찬하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 것을 소설에 그대로 반영하여 편찬서의 내용을 반복·강조·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선 내용을 종합해 보자. 『일선속지』는 선산 유자들의 특성을 이어 고장의 긍지를 드러내기 위해 특히 여러 인물을 제시하는 데 힘썼고 <오유거사전> 역시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제시하는 것에 작품의 1/3 가량을 소모하고 있다. 또한 『일선속지』에 적힌 인물이 <오유거사전>에 순서대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각주 21번에서 말한 대로 오류를 범한 부분까지 그대로 나타날 정도이다. 요컨대 <오유거사전>은 인물 중심 『일선속지』의 재판이며,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한 기능성 작품이다. 김지원은 이런 의도 하에 <오유거사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말 처리와 관련한 남는 문제

앞에서 『일선지』와 『일선속지』 인물조에 해당하는 인물을 하나하나 부르는 장면을 인용했었다. 그런데 그들 인물의 이름을 다 부른 후에 작가는 이런 대목을 덧붙였다.

“이상은 (『일선속지』에 명단이 오른 이들입니다.) 비록 편찬자 未詳의 책입니

다만 이것이 公論인 듯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모두 말했다.

“여론이 그러한데 감히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大事이니 다시금 道論을 물어서 내년 봄에 힘써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들 그러자고 하였다.³⁰⁾

스스로 『일선속지』를 편찬하고도 이 부분에서는 ‘편찬자 未詳’이라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일선지』에서 뽑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일선속지』에서 뽑은 인물을 말하고는 道論을 들어야 한다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두 책을 나란히 제시하긴 했으나 스스로가 편찬한 책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300여 년 전 인물과 나란히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겸양의 의미로 자신의 이름은 적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또한 『일선속지』의 인물 중 몇 명만을 祭享 대상자로 제시했는데, 私論으로 정한 인물들을 확정하여 실제 祭享을 올리는 것까지를 소설의 내용으로 제시하기에는 조심스러웠으므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異論으로부터 빠져나갈 구실을 만든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이나 사우의 배향·추향, 위패의 序欠문제, 先祖의 학통과 師友 연원문제 등을 두고 각종 是非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³¹⁾ 그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앞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異論’이라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문중별, 향촌별 시비다툼거리가 될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東西分黨 이후 서원의 請享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당파간의 異見이 첨예

0) <오유거사전> 79쪽: “以上雖未知何人所撰, 而似是公論也. 倘合僉議否?” 皆曰: “輿情所在, 敢有異同. 然而此係大事, 更詢道論, 以明春敦事, 似得鄭重.” 僉曰: “諾.”

1) 조선 후기의 이러한 鄉戰에 대해서는 이수환, 앞의 책, 283~343쪽 참조할 수 있다.

하게 대립되었던 일이 많았다. 예컨대 정조 3년(1779)에는 인조반정 당시 처형된 鄭仁弘 등을 추승했던 남인측 인물 河弘度를 진주의 宗川書院에 追配한 문제를 두고 반대당파와의 격렬한 鄉戰이 있기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 善山鄉校에서 모임을 가졌던 기록도 있다.³²⁾ 한 지역의 黨色이나 추승 인물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느 지역이나 다툼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대체로 영남이 이황의 東人측에 속하는 중에도 善山의 여러 집안 중 金就文·李約束·金應箕·朴守弘의 후손은 西人에 속하였다. 때문에 선산 역시 각종 鄉戰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오유거사전>과 『일선속지』를 쓴 김지원이 金就文의 후손이었으므로 그들과 집안 분위기, 당색 등이 다른 이들과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 김지원이 『일선속지』 등과 관련하여 어떤 異見 제기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으나 그 가능성만은 충분히 보인다.

<오유거사전>에는 두 차례의 享祀를 둘러싼 각 부분마다 『일선속지』에서 인물들의 명단을 옮겨 소설에 적어 넣었었다. 이때 어떤 인물은 淑行으로 제향을 받을 만한 인물로 넣고 또 어떤 인물은 曹司 公事員 등 享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였는가 하면 어떤 인물은 그저 참여자 명단에만 들어가고, 또 어떤 인물은 『일선속지』에는 있으나 <오유거사전>에는 이름이 빠진 경우도 있다. 편찬자 김지원의 私見에 따른 판단이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본질적으로 異見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김지원 자신도 이 점을 생각하였으므로 결말을 위와 같이 처리하였을 것이다.

한 책이나 작품을 쓰면 知人 등에게 草稿를 주면서 서문이나 발문 등을 부탁하여 이것까지 포함하여 製冊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지원이 의도적으로 모방하려 했던 <금생이문록> 역시 그 끝에 <題崔季昇所撰琴生傳後>

32) 오이환, 「18세기의 江右學派-宗川書院 院變문제풀 중심으로-」, 『東洋哲學』15집 (동양철학회, 2001.09), 179~200쪽.

라는 李垞의 발문이 붙어 있어 이 작품의 작자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소설에 김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일선속지』는 향간에 유통되지 않은 채 後孫家에서 보관 중이었다. 이 안에 포함된 <오유거사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김지원은 『일선속지』를 미완 상태로 묻어 두지 않았나 싶다. 『일선속지』地卷이나 人卷 안에 포함된 여러 글들이 특정한 유형이나 기준 없이 합철 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그런 혐의가 더욱 짙다. 또 수록되어 있는 글 역시 자신의 집안사람이나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들의 것이 대부분³³⁾이니 이에 따른 각종 문제를 생각하여 묵혀 두었을 것이다.

요컨대 저자는 혹시 있을 異見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정하면서 소설을 마무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 책이 미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오유거사전>의 문학적 의미 - 마무리를 곁하여

이상에서 書院 樞軸과 복설운동, 선산지방의 士類문화와 관련하여 소설 <오유거사전>을 살펴보았다. <오유거사전>은 김지원이 1901년에 써서 『일

33) 예컨대 김지원의 5代祖인 晚窩 金裕壽, 11대조인 구암 김취문, 김취문의 스승 송당 박영의 글이나 이들에 대해 쓴 글이 『일선속지』에 다수 실렸다. 김지원이 자신의 집안과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이 邑誌를 私撰했다는 점은 심재완, <일선속지해제>, 510~511쪽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금생이문록> 역시 최현이 자신의 집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들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다는 내용의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김동협, 앞의 논문) 즉 김현은 金澗 집안과 친척간이고 박운이나 김취성의 후손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또 이 두 사람은 박영의 제자이기도 했다. 이런 인맥 때문에 특히 <금생이문록>에서 김주를 길재의 반열에까지 올리는 등 이들 인물을 의도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작 의도의 면에서까지 이 두 작품이 일정한 공통점을 보인다는 면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하다.

선속지』天卷 뒤에 덧붙여 놓은 몽유록 작품으로, 서원 훼철 이후 이에 대한 士類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享祀를 재개하는 내용을 쓴 작품이다. 이 작품에 관하여 특히 그 시간적 배경과 인물 설정상의 이유를 살펴보고, 인물의 단순한 제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오유거사전〉의 창작 의도와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요약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오유거사전〉을 문학작품 자체로 살피기보다는 창작 의도나 기능 등 작품 외적인 것에 주목한 것이 사실이다. 작품 내적 연구를 통해서 〈오유거사전〉의 문학 내적 성취와 미학 등을 살펴야겠으나 지면관계도 있고 논조의 초점과도 어긋나므로 다루지 않았다. 몽유양식상의 의의를 잠시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려 한다.

조선시대 가문소설 등에서는 이른바 상·하편 등으로 연결되는 連作소설이 많이 등장하였다. 몽유록에는 이렇듯 뚜렷이 連作으로 명명할 만한 작품이 없었으나, 〈오유거사전〉은 〈금생이문록〉과의 연작관계가 뚜렷하여 문학사적으로 특이한 작품이다.

몽유록은 〈九雲夢〉, 〈金華寺夢遊錄〉, 〈玉蓮夢〉 등에서 보듯 17세기 후반 이후 서사성을 크게 확장하고 인간의 욕망과 이념을 통합하여 장편화해 나간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³⁴⁾ 그러다가 19세기말에 들어 〈晚河夢遊錄〉(1907년)이나 〈夢見諸葛亮〉(1908년), 〈夢拜金太祖〉(1911년) 등 처럼 우리 역사의 격동기에 시대적 위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이 나타난다. 〈烏有居士傳〉은 전대 몽유양식들의 일반적인 흐름과 같이 장편화의 길을 걷지는 않았으나 위태로운 당대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한일합방이 현실화되는 변화를 겪으며 이런 문제의식과 관심영역

34) 이 점에 대해서는 신재홍, 『韓國夢遊小說研究』(계명문화사, 1994), 143~219쪽을 참조 바람.

이 국가적·국제적 상황에까지는 미칠 때 <晩河夢遊錄> 등과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두 경향을 잇는 자리에서 <烏有居士傳>의 의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유거사전>이 흔히 소설에서 쉽게 나올 법 하지 않는, 선비들의 享祀 관련 문제를 다룬 것은 그 소재상 특이하여 흥미를 끄는 것이 사실이다. 선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두고 반복적으로 서사 작품이 나타나는 점은 지방 문화사적인 면에서 다룰 만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인물을 단순나열하기만 하였을 뿐 그런 인물들의 특정 목소리나 모습, 의식 등을 형상화하여 실제 사건을 전개시킨다거나 하는 내용 없이 享祀만을 반복 제시하는 것으로 작품을 구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학적 성취는 그리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다.

【참고문헌】

『고종순종실록』

『一善誌』

『一善續誌』

김동협, 「〈금생이문록〉의 창작배경과 서술의식」, 『동방한문학』27집, 동방한문학회, 2004.12, 95~115쪽.

문범두, 「금생이문록의 작자의식과 주제」, 『한민족어문학』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12, 383~420쪽.

서신혜, 『열녀 향량을 말하다』, 보고사, 2004, 13~218쪽.

신재홍, 『韓國夢遊小說研究』, 계명문화사, 1994, 143~219쪽.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162~192쪽.

심재완, 「일선속지해제」, 『일선속지』, 선산문화원, 1985, 503~513쪽.

오이환, 「18세기의 江右學派-宗川書院 院變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哲學』15집, 동양철학회, 2001.09, 179~200쪽.

우인수, 「여현 장현광과 선산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113~142쪽.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19~534쪽.

이수환, 『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2001, 1~391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1~361쪽.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1~215쪽.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萍山地方의 香娘이 ‘국가 열녀’로 選生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집(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한충희, 「선산과 조선전기 성리학 및 사림파」, 『한국학논집』24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31~60쪽.

홍재휴, 「烏有居士傳考」, 『연구논문집』56집, 대구 효성가톨릭대, 1997.12, 57~72쪽.

홍재휴, 「금생이문록-몽유록계 소설의 新資料」, 『국어교육연구』2집(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71), 145~161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moval of lecture-hall in Seonsan and Oyugeosajeon

Seo, Shin-Hye

A lecturehall is an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educational of a country village in Joseon dynasty. Equally a lecturehall is at the centre of a political row. Sarim(士林) were shocked by the removal of lecturehall.

Oyugeosajeon encapsulates a moment of the removal of lecture-hall in Seonsan. This thesis pointed out several facts.

First, this novel was written in the midst of a discussion about rebuilding the lecturehall. So Writer was not anonymity for fear of future troubles. Second, Kim-Jiwon concentrate his efforts to arrange the list of names from Seonsan during compilation of Ilseonsogji(一善續誌). This feature showed up in the Oyugeosajeon. This feature also is a particularly attractive feature of the Sarim lived in Seonsan. Third, the list of names from Seonsan accounted for 30% in Oyugeosajeon. And the list of names accord with the Ilseonsogji. On that account, Oyugeosajeon seems the writer's blurb on Ilseonsogji.

Key Word

removal of lecture-hall, Seonsan, Oyugeosajeon, Ilseonsogji, Geumsaengimunnok, Ilseonji, memorial services, Kim-Jiwon, Choi-Hyeon